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모델의 실증분석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lementation Model of Global e-trade

이상진(Sang-Jin Lee)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통상전공 조교수

정재승(Ja-Son Chung)

중앙대학교 박사수료

목 차

- | | |
|------------------------|------------------|
| I. 서론 | III. 가설설정 및 실증분석 |
| II. 글로벌 전자무역의 개념과 현황분석 | IV.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four models of global e-trade implementation which was suggested at the advance research of implementation global e-Trade with major trading countries. The main outcomes of this empirical study are as follows. For realizing global e-trade of G-Networking model country we have to implement e-trade in the field of "import & logistics". And for realizing global e-trade of P-Networking model country, it need to try in "settlement & clearance". Furthermore, for realizing global e-Trade of G-Penetration model country, we have known that the field of "import & logistics" would be implemented. Finally for realizing global e-Trade of P-Penetration model country, "settlement & clearance" could be implemented. Also, this study suggests that we have to do negotiation with China and Japan at first, and to try the area of settlement & clearance to implement the global e-Trade with Korea's 10 major trading countries.

Key Words : global, global e-trade, implementation model of global e-trade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전자무역을 무역자동화·인터넷무역·사이버무역 등 다양한 개념으로부터 발전해 왔다. 90년대 초부터 무역 업무에 전자문서교환방식(EDI)을 도입하는 무역자동화 사업을 추진하여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절감의 성과를 거뒀다.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의 개방성과 확장성, 끊임없이 고도화되는 IT 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할 때 전자무역의 가능성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홍콩은 이미 지난 2003년 이래 디지털 무역(DTTN : Digital Trade and Transportation Network) 인프라 구축사업을 펼치고 있고, 미국은 자국 무역프로세스 자동화(ACE : 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싱가포르 등도 전자무역을 국가 e비즈니스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21세기 글로벌 무역강국 e트레이드 코리아 실현”이라는 기치 아래, 2003년 7월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국가 차원의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4년 9월에 개최된 제2차 국가전자무역위원회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 기반 강화,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전자무역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을 도출해 시행하고 있다.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핵심전략 중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로서, 국가 및 지역별로 차별화된 글로벌 전자무역 정책이 글로벌 전자무역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점과 무역원활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글로벌 전자무역의 구현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에 성공적인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가 조성된다면 저비용 및 고효율 구조의 무역환경을 갖추게 되어 역내 무역원활화와 기업 경쟁력을 크게 높여 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무역자동화 인프라는 전자무역의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전자무역의 핵심서비스로 현재 구축중인 전자무역 플랫폼이 완성되면 글로벌 전자무역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전자무역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전자무역의 구현을 위한 전자무역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전자무역의 확장 개념인 글로벌 전자무역의 구현 모델에 관한 연구로서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모델의 국가별 또는 지역별 구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글로벌 전자무역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000여개의 무역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글로벌 전자무역의 구현모델 수립을 위한 설문 분석을 한 후, 이러한 실증분석들을 종합하여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모델별로 구체적인 적용분야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전자신문, “[열린마당]전자무역, 무역의 속도를 바꾼다.” 「전자신문」, 2005.11.28

2. 선행연구 분석

전자무역에 대한 연구는 과거 전자상거래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10여년부터 있었지만, 글로벌 전자무역에 대한 연구는 최근 2-3년 전부터 연구되고 있다. 주로 우리나라를 주축으로 추진 중인 PAA사업, 한일 e-Hub사업, ASEM사업 등 단위사업에 대한 현황분석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아직 글로벌 전자무역에 관한 모델연구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자무역 관련법, 제도 및 국제적인 인증과 전자문서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상진·정재승(2005)²⁾는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모델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어, 글로벌 전자무역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SWOT 분석을 통하여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모델을 도출하였고,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파일럿형식의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의 구현국가와 서비스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각 국가별로 적용 가능한 4가지 구현모델을 제시하였다.

윤광운·김철호(2004)³⁾는 현재까지 추진 중인 PAA, 한일 e-Trade Hub, ASEM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PAA는 전자문서의 저장모델 선정방식 중 분산모델과 중앙집중식모델의 선택여부, 한일 e-Trade Hub는 양국간 e-MP를 통한 전자무역이 활성화엔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처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ASEM도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기구가 없다는 점과 EU의 경우 사업을 수행할 주체가 없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양국간에 무역업무의 간소화와 표준화에 대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무역관련 네트워크의 연결에만 집중함으로써 기존의 관행을 전자화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이봉수(2004)⁴⁾는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PAA, 한일 및 e-AMP, ASEM 등 국제협력 시범사업을 연구하여 글로벌 전자무역의 역할 및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전자무역 문서교환 및 원본성의 상호인정이 해결되어야 하고, 국가차원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방안, 예를 들면, 적용문서의 확대, 전자무역 네트워크 연동시스템 구축, 무역유관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세미나 및 포럼 등의 정기적인 개최를 통한 홍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자무역 네트워크 참가기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만(2004)⁵⁾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PAA, 한일 e-Trade Hub, ASEM에 대해 언급하며, 글로벌 전자무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별, 국가별 상호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엇보다도 핵심서비스를 개발하여 주변국에 제공될 수 있는 기술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진·정재승,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모델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7권 제4호, 2005. 12. pp.321-322.

3) 윤광운·김철호, "글로벌 전자무역네트워크의 과제와 전망", 「국제무역연구」 제10권 제1호, 2004. 4. pp.164-165.

4) 이봉수,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협력강화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5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04, p96.

5) 박 만, "한·ASEM e-Trade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1호, 2004. 3. pp.187-188.

최석범(2003)⁶⁾은 기업간 글로벌 전자상거래 구현모델상의 문제점으로 모델정립을 위한 무역프로세스 BPR의 부족, 지역별 전자무역의 수용능력의 미비, 법적장치의 미비, 국내 네트워크와의 연동체제의 미비, 인증업무의 표준화 미비 및 상호 운용성 확보 미비 등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글로벌 전자무역에 관한 선행연구의 시사점은 글로벌 전자무역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국가별 상호연동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과 현재 추진 중인 각각의 구축사업에서 해당 전자무역 문서의 교환과 원본성의 상호인정, 참가기업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직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므로, 현재 추진 중인 구축사업에 대한 현황분석과 우리나라와 교역 10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모델에 대한 유형의 적합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우리나라와 적합한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분야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글로벌 전자무역의 개념 및 현황분석

1. 정의 및 범위

글로벌 전자무역은 전자무역⁷⁾ 서비스에 대한 고객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해외 전자무역 네트워크와 국내 전자무역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 제반 서비스로 정의⁸⁾할 수 있다. 여기서 글로벌 전자무역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기존 해외 전자무역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한 해외 기업 또는 정부에 대한 서비스 구축을 들 수 있고, 다음으로 글로벌 서비스 완성을 하여 필요한 국내 전자무역 서비스의 고도화와 국가간 전자무역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글로벌 전자무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전자무역 서비스 구현사업의 완성과 글로벌 전자무역 서비스로의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어야 한다. 또한 대상 국가와의 전자무역 서비스 구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법제도, 인프라의 상호 개선이 요구되고,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자무역 서비스 이용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의 구축과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유기적인 민관협동체제의 가동이 필요하다.

6) 최석범, "사이버무역시대에서의 글로벌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모델도입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3, p.378.

7) "전자무역"이라 함은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대외무역법 제2조 6항

8) 본 연구에서 글로벌 전자무역의 정의는 일반적인 전자무역의 정의가 광의의 개념이어서 협의의 개념으로 무역인프라 구축으로 한정한다.

2. 글로벌 전자무역 추진현황

1) PAA(Pan Asian e-Commerce Alliance)⁹⁾ 사업현황

PAA사업은 기존 무역자동화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별기업들의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0년 7월 대만, 홍콩, 싱가포르 3개국을 중심으로 발의하여, 2000년 9월 한국, 중국 등 5개국을 중심으로 PAA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후 2003년부터 정부지원 하에 동아시아 전자무역 허브구축을 목표로 전자무역 프로세스 및 전자문서의 표준화, 글로벌 전자무역을 위한 IT인프라 구축, 사용자 확산 및 사용자 시스템 연계지원, 인증 및 부가서비스 구축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참여기업은 전기/전자업종 및 철강, 섬유업종의 무역업체 및 물류업체이다.¹⁰⁾

PAA사업의 성과는 해외 파트너와의 네트워크 연계와 PAA 회원사간 협정체결로 정기적인 협의체널을 구축하여 해외 전자무역 구축사업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시범사업으로서 참여기업 대상의 전자문서 개발과 문서교환이 미미하나마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중장기 전략 하에 체계적인 사업계획과 세부실행을 위한 전략 및 로드맵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2) ASEM(Asia Europe Meeting)¹¹⁾ 사업현황

ASEM사업은 ASEM¹²⁾ 차원의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역량 확대와 국가 차원의 효율적 전자무역기반 구현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 및 개별기업들의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 제1차 ASEM TFAP(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전자상거래 회의에서 회원국간의 합의에 따라 추진되었다. 구체적인 사업목표는 ASEM 회원국간의 서류 없는 무역거래 프로세스의 구현을 전제로 B2B 문서뿐만 아닌 B2G 문서까지의 전자화를 통한 전자무역의 구현과 이를 통한 한-유럽간 교역량 확대 및 전자무역 분야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민관 합동협의기구인 아시아-유럽전자무역연합을 설립하였고, 현재는 사용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나, 향후 TFAP/ASEAL(Asia-Europe Alliance for Paperless Trade) 협의를 통한 해외파트너사와의 Hub to Hub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¹³⁾

ASEM사업의 시사점은 정부주도로 발전한 아시아의 Single Gateway 접근과는 달리 국가차원의 대표

9)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참여하는 해외파트너는 일본의 TEDI, 중국의 CIECC, 홍콩의 TradeLink, 대만의 TradeVan, 말레이시아의 DagangNet, 마카오의 TEDMEV, 싱가포르의 Crimsonlogics, 태국의 CAT, 한국의 KTNET, (2005년 1월 현재)

10) KTNET, "PAA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사업 현황보고", 2004.7, p.67

11) 아시아 유럽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민간참여사는 한국의 KTNET, 독일의 DAKOSY, 영국의 SITPRO, 프랑스의 EDIFRANCE임.

12) 아시아유럽정상회의로써 1996년 3월1일 설립된 이래, 현재 아시아 10개국, 유럽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13) KTNET, "ASEM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사업", 2004.1. p76

적인 전자무역 사업자가 없으며 보안성 문제로 인터넷에 대한 신중한 접근으로 사업진행속도가 매우 늦다. 또한 국내외 사용자들을 KTFNET이 직접 연결하는 END To END 방식은 사용자 확산에 한계가 있어, 효과적인 사용자 확산을 위해서 Hub to Hub 모델을 지향하다는 목표 하에 ASEAL(아시아-유럽 전자무역 연합)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EU차원의 국제협력기구와 국가별 공동 프로젝트의 우선적 추진이 필요하다.

3) 도미니카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¹⁴⁾현황

우리나라 관세청은 지난 3월에 도미니카 관세청과 제1차 한-도미니카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양국간 관세행정 혁신사례 정보교환, 관세행정정보화추진 경험공유 및 신속통관 지원 등을 위한 협력채널 구축에 합의했고, 양국 관세청장은 IT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무역원활화 및 절차간소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상호간 정보화 관련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관세청간 관세행정정보화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지난 03년 1월에 도미니카공화국은 e-Customs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05년 7월에 도미니카 재무부에서 한국외교부에 EDCF자금¹⁵⁾에 대한 차관신청서를 제출했고, 동년 9월의 양국 정상회담시 정상간 사업추진 합의했으며, 11월에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서 EDCF 지원 방침을 통보하여, 총 도미니카 전자통관시스템 프로젝트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이며, 금액은 2,900만불(한화 약 290억원)이며, 동 금액 중 한국수출입은행 EDCF에서 24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자통관시스템 수출과 관련하여 한-도미니카 관세청장회의는 관세당국간 국제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중미까지 확대함으로써 중남미국가에 대한 우리 수출상품의 우호적 통관분위기를 조성하였다.

3.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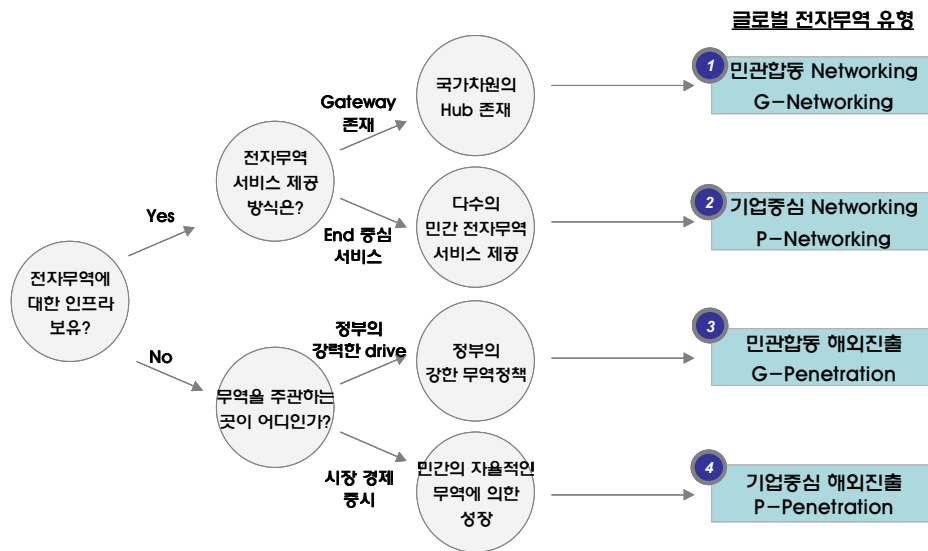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현모델은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과 전자무역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라 Gateway를 활용한 국가차원의 Hub가 존재하는 유형과 다수의 전자무역 서비스가 존재하여 민간차원의 End to End 방식이 존재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전자무역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글로벌 전자무역 추진주체에 따라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을 구분된다. 정부주도형의 전자무역을 추진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사전교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민간주도형의 경우에는 협회와 같은 민간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주도형의 정부는 국제교류 및 협약, 법과 제도, 채널 관리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민간주도형의 협회는 상호교류, 대상사업의 발굴, 사업기획 등 글로벌 전자무역 전략수립의 사업관리,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해

14)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해외수출지원을 위한 세일즈외교 본격전개”, 보도자료, 2006.3.31, 관세청 국제협력과

15)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한국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야 한다. 또한 전자무역 추진사업자는 사업기획, 개발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전자무역 서비스 제공방식과 전자무역 추진주체를 구분하여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현모델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II-1 참조)

<그림 II-1>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모델



자료 : 글로벌 전자무역 장기전략 수립, 인터젠 컨설팅, p.183

상기의 4가지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모델은 각각 추진상의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민관합동 네트워킹 구현모델(G-Networking)은 대상국가 정부의 영향 아래 전자무역의 허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국가와 국내의 정부간 교류에 의해서 네트워킹이 형성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현재 PAA사업 대상 국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구현모델이며, 둘째, 기업중심 네트워킹 구현모델(P-Networking)은 대상국가 정부가 주도하여 전자무역정책을 수립, 운영하기 보다는 자율경쟁에 의하여 전자무역 인프라를 구축하기 때문에 대상국가의 전자무역 서비스 제공업체를 중심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ASEM사업 대상국가인 주요 유럽 국가들과 북미 국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구현모델이다. 셋째, 민관합동 해외진출 구현모델(G-Penetration)은 대상국가의 정부가 무역정책을 주도하나 아직 전자무역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정부가 대상국가의 정부에 전자무역 인프라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권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주로 아시아권의 개발도상국가 특히,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에서 구현하려고 검토하는 모델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중심 해외진출 구현모델(P-Penetration)은 자율경쟁에 의하여 글로벌 전자무역을 구현하나 전자무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미진

하기 때문에 국내의 전자무역 서비스 제공기업이 대상국가의 전자무역 네트워크를 구축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동유럽,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모델유형이다.

〈표 II-1〉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모델별 추진특성 및 주요대상국

		전자무역 추진사업	
		전자무역 네트워킹사업	전자무역 해외진출사업
대상국가의 전자무역 추진특성	정부주도형 국가 (G형 국가)	G-Networking	G-Penetration
		·정부주도의 사업자가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 ·PAA 대상국가 주요대상	·아직 전자무역인프라 구축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강력한 전자무역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주로 아시아 개발도상국 위주(베트남, 캄보디아)
	민간주도형 국가 (P형 국가)	P-Networking	P-Penetration
		·민간자율로 전자무역인프라구축, 전자무역 VAN 제공 ·ASEM 대상국가인 유럽국가와 북미국가 주요대상	·아직 전자무역인프라 구축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자무역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국가가 대상 ·동유럽, 중남미 일부국가 위주

자료 : 글로벌 전자무역 장기전략 수립, 인터젠 컨설팅, p.184

Ⅲ. 가설 설정 및 실증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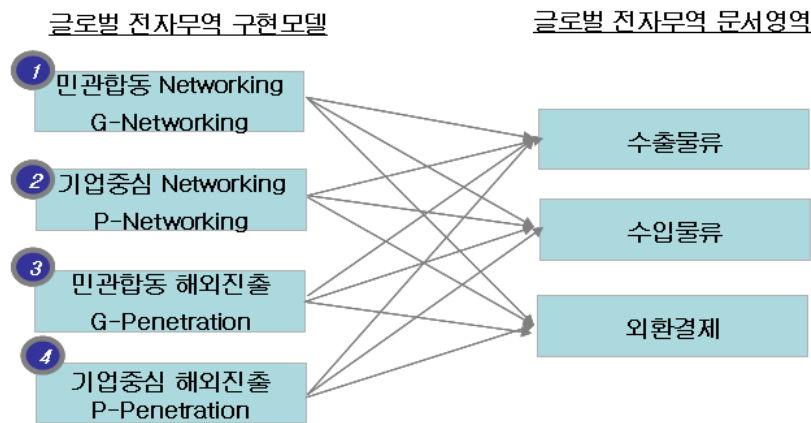
1.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모델에 대한 유형별 무역거래가 있는 기업들이 향후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시 전자무역문서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정부주도형 전자무역 네트워킹사업 구현모델(G-Networking) 대상국의 전자무역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수입물류문서”를 우선적으로 희망할 것이다.
- 가설 2: 민간주도형 전자무역 네트워킹사업 구현모델(P-Networking) 대상국의 전자무역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외환결제문서”를 우선적으로 희망할 것이다.
- 가설 3: 정부주도형 해외진출사업 구현모델(G-Penetration) 대상국의 전자무역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수입물류문서”를 우선적으로 희망할 것이다.

가설 4: 민간주도형 해외진출사업 구현모델(P-Penetration) 대상국의 전자무역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외환결제문서”를 우선적으로 희망할 것이다.

<그림 III-1> 연구모형



2. 조사방법 및 응답업체 현황

1) 자료의 조사대상 및 수집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전자무역을 하고 있는 무역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재 무역EDI를 사용하고 있는 1,000여개 무역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기업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한국무역정보통신에 가입되어 무역EDI를 사용하는 무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웹 설문과 e-Mail 그리고 팩스를 이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06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약 4주간 실시되었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등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는 제외시키고 유효설문지만을 선정한 결과 198부의 설문지가 모집되었다.

분석방법은 자료입력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고, 선별된 자료를 바탕으로 설문의 신뢰도(Reliability)와 타당성(Validity)을 파악하였는데 변수에 대한 신뢰성 검증은 상관분석(Correlation)을 통한 크론바 알파(Cronbach's Alpha)계수로 측정하였고,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을 통해 t통계량을 이용하였다. 검증처리는 SPSS 10.0¹⁶⁾을 이용하였다.

16) 김석우 외,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SPSS WIN 10.0 활용의 실제」, 교육과학사

2) 응답기업의 일반적 특성

(1) 응답기업의 주요 결제방식

응답기업의 무역결제방식에 대한 질문에서 단연코 단순송금방식(110개사)이 제일 응답이 많았다. 우리나라 교역의 결제방식 비중이 신용장방식에서 단순송금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무역 EDI를 사용하는 기업들도 과거 신용장방식의 거래에서 단순송금방식으로의 변화가 본 연구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표 III-1〉 응답기업의 주요 결제방식

결제방식	업체수	결제방식	업체수
단순송금방식(T/T, M/T)	110	기한부 L/C	28
사후/동시송금방식(COD, CAD)	10	D/P	3
일람출급 L/C	39	Open Account	1
D/A	7	합계	198

(2) 응답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EDI 서비스(중복응답가능)

응답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EDI 서비스는 결제통관서비스(107개사)가 제일 많이 응답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수출물류서비스(99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05년부터 새롭게 인터넷 EDI로 구현되고 있는 L/G, D/O 등 수입물류서비스 이용기업은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응답기업의 주로 사용하는 EDI 서비스(중복응답가능)

EDI 서비스	빈도수(업체수)
결제통관서비스(수출/입 신고, 관세환급 등)	107
수출물류서비스(L/C 통지, C/O 발급, 요건확인서 발급 등)	99
부가서비스(수출입통계정보 등)	46
수입물류서비스(L/G, D/O 발급 등)	24
사용치 않음	32
합 계	276

(3) 응답기업의 주요 교역국

응답기업 중 주요 교역국으로는 일본이 가장 많이 응답을 했으며, 그 뒤로 미국과 중국이 뒤를 이었

으며, 대만, 독일, 홍콩 순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10대 주요 교역국은 중국, 미국, 일본 순이지만, 전자무역을 활용하는 응답 기업들의 주요 교역국 빈도수는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 응답기업의 주요 교역국(중복응답 가능항목)

국가	빈도	퍼센트	국가	빈도	퍼센트
중 국	101	51.0	독 일	46	23.2
미 국	102	51.5	싱 가 포 르	37	18.7
일 본	115	58.1	영 국	24	12.1
홍 콩	44	22.2	인도네시아	37	18.7
대 만	54	27.3	말레이시아	26	13.1
			합 계	586	

응답기업 중 우리나라 수출교역 상위 10개국 중 2개국과 교역하는 기업이 70개사로 제일 많았고, 1개국과 교역하는 기업도 35개사로 그 뒤를 이었다.

〈표 III-4〉 응답기업의 주요 교역국의 수

교역국	1개국	2개국	3개국	4개국	5개국	6개국	7개국	8개국
업체수	35	70	22	27	13	6	16	3

(4)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희망지역

198개 설문결과 응답기업 중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희망지역에 대해 응답한 업체 대상의 분석결과,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희망지역은 중국(121), 일본(102), 미국(96), 홍콩(40), 대만(30), 독일(30), 영국(27), 인도네시아(21), 말레이시아(19), 싱가포르(16)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가의 빈도수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응답 기업들의 전자무역을 활용하는 교역국가의 빈도와도 동일하게 나타나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교역국가중에서 중국과 일본을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와 글로벌 전자무역이 구현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 희망국가(중복응답 가능항목)

국가	빈도	퍼센트	국가	빈도	퍼센트
중 국	121	61.1	독 일	30	15.2
미 국	96	48.5	싱 가 포 르	16	8.1
일 본	102	51.5	영 국	27	13.6
홍 콩	40	20.2	인 도 네 시 아	21	10.5
대 만	30	15.2	말 레 이 시 아	19	9.6
			합 계	502	

한편 우리나라와 우선적으로 글로벌 전자무역의 구현을 희망하는 국가를 2개국이라고 응답하는 업체가 가장 많았고, 3개국(47개사), 1개국(48개사)순으로 응답을 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가와 전자무역 네트워크의 구현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III-6〉 응답업체의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희망국가 수

희망국	1개국	2개국	3개국	4개국	5개국	6개국	8개국
업체수	48	54	47	22	15	3	3

3. 가설검증 및 실증분석

가설 1: 정부주도형 전자무역 네트워킹사업 구현모델 대상국의 전자무역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수입물류문서”를 우선적으로 희망할 것이다.

정부주도형 전자무역 네트워킹사업 구현모델 대상국의 현재 사용 중인 무역문서의 글로벌 전자문서로서 활용가능성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알파계수인 $\alpha=.7542$ 로 나타나 표본기업들이 응답한 자료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III-7〉 정부주도형 네트워킹사업 대상국의 글로벌전자문서 활용성에 대한 신뢰도분석

무역문서	평균	표준편차	제거했을 때의 Alpha계수
1. Offer Sheet, Purchase Order	.9615	.1932	.7351
2. 상업송장	.9038	.2962	.7363
3. 포장명세서	.9038	.2962	.7424

4. 원산지증명서	.8846	.3210	.7423
5. 요건확인서	.7788	.4170	.7167
6. 수출/입 신고서	.9231	.2678	.7342
7. 선하증권	.9712	.1682	.7404
8. 항공화물운송장	.9327	.2518	.7279
9. 화물선취보증서	.8462	.3625	.7411
10. 화물인도지시서	.8558	.3530	.7265
11. 내국신용장	.8558	.3530	.7534
12. 신용장	.9423	.2343	.7318
13. 환어음	.8942	.3090	.7731

* Alpha 계수=.7542, N=104

이러한 신뢰도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주도형 전자무역 네트워크사업 구현모델 대상국의 글로벌 전자 무역문서 활용성에 대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 수출물류, 수입물류, 외환결제라는 3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표 III-8> 정부주도형 네트워크사업 대상국의 글로벌전자문서 활용성에 대한 요인분석

요인명	글로벌전자문서 활용성(요인별)		
	수출물류	수입물류	외환결제
7. 선하증권	.865	.103	-.144
8. 항공화물운송장	.851	6.421E-02	6.148E-02
1. Offer Sheet, Purchase Order	.814	7.442E-02	8.003E-02
3. 포장명세서	.802	-1.0E-01	2.440E-02
2. 상업송장	.779	-8.5E-03	3.289E-02
9. 화물선취보증서	-.162	.880	.155
10. 화물인도지시서	-9.1E-02	.816	.315
5. 요건확인서	.424	.663	2.408E-02
6. 수출/입 신고서	.503	.602	-.298
12. 신용장	-1.4E-02	.374	.782
11. 내국신용장	-1.0E-02	9.760E-02	.781
4. 원산지증명서	3.265E-02	.205	.736
13. 환어음	2.869E-02	-.169	.468

1) 요인추출 방법 : 주성분 분석 2) 회전 방법 : 베리맥스 3) 요인추출의 준거 : 아이겐 값(1.0)

여기 추출된 세 가지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정부주도형 전자무역네트워킹사업에서 글로벌 전자무역문서로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문서는 두 번째 요인인 수입물류문서로 화물선취보증서(L/G), 화물인도지시서(D/O), 수입요건확인서, 수출입 신고서 등으로 유의확률이 0.002로 나타나 가설1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수출입신고서의 경우 설문조사에서 동일 항목으로 설문하여 수출신고서가 포함되었으나, 수출신고업무보다 수입신고업무의 비중이 큰 것을 고려하면 가설1의 채택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들의 단계선택 투입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수출물류, 외환결제의 독립변수들은 유의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서 분석결과에서 제외하였다.

<표 III-9> 정부주도형 네트워킹사업 대상국의 수입물류전자문서 활용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B	β	t값	유의확률
상수	2.933		29.354	.000
수입물류(요인2)	-.322	-.302	-3.203	.002

주) $R^2 = .091$, 유의확률 : 0.002

가설 2: 민간주도형 전자무역 네트워킹사업 구현모델 대상국의 전자무역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외환결제문서”를 우선적으로 희망할 것이다.

민간주도형 전자무역 네트워킹사업 구현모델 대상국의 현재 사용 중인 무역문서의 글로벌 전자문서로서 활용가능성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알파계수인 $\alpha=.9230$ 로 나타나 표본기업이 응답한 데이터의 신뢰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III-10> 민간주도형 네트워킹사업 대상국의 글로벌전자문서 활용성에 대한 신뢰도분석

무역문서	평균	표준편차	제거했을 때의 Alpha계수
1. Offer Sheet, Purchase Order	.8421	.3663	.9223
2. 상업송장	.8947	.3082	.9147
3. 포장명세서	.8158	.3894	.9138
4. 원산지증명서	.8596	.3489	.9225
5. 요건확인서	.7281	.4469	.9239
6. 수출/입 신고서	.8509	.3578	.9134
7. 선하증권	.9211	.2708	.9182
8. 항공화물운송장	.8421	.3663	.9084

9. 화물선취보증서	.7456	.4374	.9182
10. 화물인도지시서	.7807	.4156	.9147
11. 내국신용장	.8070	.3964	.9203
12. 신용장	.9211	.2708	.9155
13. 환어음	.8684	.3395	.9155

* Alpha계수=.9230, N=114

이를 바탕으로 민간주도형 전자무역 네트워킹사업 구현모델 대상국의 글로벌 전자문서 활용성에 대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 수출물류, 외환결제, 수입물류 3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부주도형 네트워킹사업 구현모델과 비교할 때, 수출입신고서가 수입물류에서 수출물류로 전이된 것이다. 이는 수출입신고 업무가 전자적으로 구현되면 수출신고가 수입신고로 연결되어 동일한 업무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11> 민간주도형 전자무역 네트워킹사업 대상국의 글로벌전자문서 활용성에 대한 요인분석

요인명	글로벌전자문서 활용성(요인별)		
	수출물류	외환결제	수입물류
7. 선하증권	.908	.211	4.807E-02
1. Offer Sheet, Purchase Order	.852	-.104	.211
2. 상업송장	.765	.415	.153
6. 수출/입 신고서	.713	.219	.454
8. 항공화물운송장	.686	.425	.462
3. 포장명세서	.614	.558	.174
4. 원산지증명서	2.867E-05	.814	.210
11. 내국신용장	.149	.793	.210
13. 환어음	.369	.745	.225
12. 신용장	.529	.616	.234
10. 화물인도지시서	.180	.366	.849
5. 요건확인서	.133	.118	.842
9. 화물선취보증서	.271	.240	.760

1) 요인추출 방법 : 주성분 분석 2) 회전 방법 : 베리맥스 3) 요인추출의 준거 : 아이겐 값(1.0)

추출된 세 가지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민간주도형 전자무역 네트워킹사업에서 글로벌 전자무역 문서로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문서는 외환결제문서인 원산지증명서, 내국신용장, 환어

음, 신용장 등으로 유의확률이 0.229로 나타나 가설2는 채택되었다. 그러나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들의 단계선택 투입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수출물류, 수입물류의 독립변수들은 유의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서 분석결과에서 제외하였다.

<표 III-12> 민간주도형 네트워크사업 대상국의 외환결제전자문서 활용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B	β	t값	유의확률
상수	1.509		21.367	.000
외환결제(요인2)	8.571E-02	.113	1.208	.229

주) $R^2 = .013$, 유의확률 : .229

가설 3: 정부주도형 해외진출사업 구현모델 대상국의 전자무역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수입물류문서”를 우선적으로 희망할 것이다.

정부주도형 해외진출사업 구현모델 대상국의 현재 사용 중인 무역문서의 글로벌 전자문서로서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알파계수인 $\alpha = .8825$ 로 나타나 표본기업이 응답한 데이터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III-13> 정부주도형 해외진출사업 대상국의 글로벌전자문서 활용성에 대한 신뢰도 분석

무역문서	평균	표준편차	제거했을 때의 Alpha계수
1. Offer Sheet, Purchase Order	.8200	.3861	.8831
2. 상업송장	.8500	.3589	.8810
3. 포장명세서	.8200	.3861	.8743
4. 원산지증명서	.8300	.3775	.8736
5. 요건확인서	.6600	.4761	.8721
6. 수출/입 신고서	.8300	.3775	.8684
7. 선하증권	.9400	.2387	.8762
8. 항공화물운송장	.8400	.3685	.8660
9. 화물선취보증서	.7000	.4606	.8775
10. 화물인도지시서	.6800	.4688	.8743
11. 내국신용장	.8400	.3685	.8739
12. 신용장	.9000	.3015	.8691
13. 환어음	.9300	.2564	.8709

* Alpha계수=.8825, N=100

이를 바탕으로 정부주도형 해외진출사업 구현모델 대상국의 글로벌 전자무역문서 활용성에 대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 앞에서 분석한 두 가지 네트워크 사업모델과 동일하게 수출물류, 외환결제, 수입물류의 3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표 III-14> 정부주도형 해외진출사업 대상국의 글로벌전자문서 활용성에 대한 요인분석

요인명	글로벌전자문서 활용성(요인별)		
	수출물류	외환결제	수입물류
7. 선하증권	.810	.142	.146
2. 상업송장	.793	.172	-.125
3. 포장명세서	.773	.431	-.113
8. 항공화물운송장	.717	.302	.355
1. Offer Sheet, Purchase Order	.701	-.101	.212
12. 신용장	.120	.878	.328
4. 원산지증명서	.223	.819	5.920E-02
11. 내국신용장	2.240E-02	.794	.296
13. 환어음	.297	.778	.269
9. 화물선취보증서	-3.4E-02	.248	.856
10. 화물인도지시서	-5.2E-02	.340	.835
5. 요건확인서	.309	.154	.738
6. 수출/입 신고서	.557	.124	.629

1) 요인추출 방법 : 주성분 분석
 3) 요인추출의 근거 : 아이겐 값(1.0)

2) 회전 방법 : 베리맥스

추출된 세 가지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정부주도형 해외진출사업에서 글로벌 전자무역 문서로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문서는 수입물류문서인 화물선취보증서, 화물인도지시서, 요건확인서, 수출/입 신고서 등으로 유의확률이 0.218로 나타나 가설3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들의 단계선택 투입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수출물류, 외환결제의 독립변수들은 유의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서 분석결과에서 제외되었다.

<표 III-15> 정부주도형 해외진출사업 대상국의 수입물류전자문서 활용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B	β	t값	유의확률
상수	1.210		29.638	.000
수입물류(요인3)	-5.1E-02	-.124	-1.240	.218

주) $R^2 = .015$, 유의확률 : 0.218

가설 4: 민간주도형 해외진출사업 구현모델 대상국의 전자무역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외환결제”를 우선적으로 희망할 것이다.

민간주도형 해외진출사업 구현모델 대상국의 현재 사용 중인 무역문서의 글로벌 전자문서로서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알파계수인 $\alpha=.5946$ 로 나타나 표본기업들이 응답한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설문조사에서 민간주도형 해외진출사업 구현모델 희망 대상국을 선택한 업체들은 현재까지 글로벌 전자무역문서에서 상업송장,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신용장 등은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신뢰도 분석결과에서 제외하였다.

<표 III-16> 민간주도형 해외진출사업 대상국의 글로벌전자문서 활용성에 대한 신뢰도 분석

무역문서	평균	표준편차	제거했을 때의 Alpha계수
1. Offer Sheet, Purchase Order	.9455	.2292	.5871
3. 포장명세서	.9455	.2292	.5871
4. 원산지증명서	.8909	.3146	.5676
5. 요건확인서	.7818	.4168	.4930
6. 수출/입 신고서	.9455	.2292	.5559
9. 화물선취보증서	.8364	.3734	.4955
10. 화물인도지시서	.8909	.3146	.5319
11. 내국신용장	.8182	.3892	.6079
13. 환어음	.8727	.3363	.6020

* Alpha계수=.5946, N=55

주) 2. 상업송장, 7. 선하증권, 8. 항공화물운송장, 12. 신용장은 활용에 대한 응답기업이 없어 제외함.

이를 바탕으로 민간주도형 해외진출사업 구현모델 대상국의 글로벌 전자문서 활용성에 대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 수출물류, 수입물류, 외환결제의 3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표 III-17〉 민간주도형 해외진출사업 대상국의 글로벌전자문서 활용성에 대한 요인분석

요인명	글로벌전자문서 활용성(요인별)		
	수입물류	수출물류	외환결제
10. 화물인도지시서	.946	-3.4E-02	-.148
5. 요건확인서	.805	-9.2E-02	.293
6. 수출/입 신고서	.802	-5.3E-02	-.122
9. 화물선취보증서	.772	.582	-.161
1. Offer Sheet, Purchase Order	-4.1E-02	.995	-5.9E-02
3. 포장명세서	-4.1E-02	.995	-5.9E-02
4. 원산지증명서	7.257E-03	-2.6E-02	.892
11. 내국신용장	-7.9E-02	-5.6E-02	.865
13. 환어음	-2.5E-02	-6.4E-02	.676

1) 요인추출 방법 : 주성분 분석 2) 회전 방법 : 베리맥스 3) 요인추출의 준거 : 아이겐 값(1.0)

추출된 세 가지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민간주도형 해외진출사업에서 글로벌 전자무역 문서로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문서는 외환결제분야의 무역문서인 원산지증명서, 내국신용장, 환어음 등으로 유의확률이 0.355로 나타나 가설4는 채택되었다. 그러나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들의 단계 선택 투입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수출물류, 수입물류의 독립변수들은 유의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서 분석결과에서 제외하였다.

〈표 III-18〉 민간주도형 해외진출사업 대상국의 외환결제 전자문서 활용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B	β	t값	유의확률
상수	1.055		34.084	.000
외환결제(요인3)	2.915E-02	.127	.934	.355

주) R2 = .016, 유의확률 : 0.355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을 위한 선행연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글로벌 전자무역의 구현을 위한 4가지 모델에 대한 특성과 주요 구현 대상국을 제시하였다. 이 4가지 모델 중 정부주도형

전자무역 네트워크사업(G-Networking)의 예로 PAA 사업과 민간주도형 전자무역 네트워크사업(P-Networking)의 예인 ASEM 사업현황과 정부주도형 해외진출사업(G-Penetration)의 예인 도미니카공화국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현황 등 구현 모델에 부합하고, 현재 구현 중에 있는 실 사례도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구현모델의 실현가능성과 구체적인 적용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위하여 구현모델의 가설을 4가지를 제시하고, 각 모델별 대상 국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글로벌 전자무역문서의 활용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에 대한 분석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모델 4가지의 대상이 되는 국가와 교역을 희망하는 무역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정부주도형 전자무역 네트워크사업(G-Networking) 구현모델 대상국의 전자무역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수입물류문서”중 화물선취보증서, 화물인도지시서, 요건확인서, 수출/입신고서 등을 가장 우선적으로 구현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주도형 전자무역 네트워크사업(P-Networking) 구현모델 대상국의 전자무역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외환결제문서”중 원산지증명서, 내국신용장, 환어음, 신용장 등을 가장 우선적으로 구현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주도형 해외진출사업(G-Penetration) 구현모델 대상국의 전자무역 구현하는데 있어서 “수입물류문서”중 화물선취보증서, 화물인도지시서, 요건확인서, 수출/입 신고서 등을 가장 우선적으로 구현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주도형 네트워크 사업모델의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민간주도형 해외진출사업(P-Penetration) 구현모델 대상국의 전자무역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외환결제문서”중 원산지증명서, 내국신용장, 환어음 등을 가장 우선적으로 구현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주도형 네트워크 사업모델과 유사하나 신용장은 제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 같이,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가와 글로벌 전자무역의 구현을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과의 구현이 최우선으로 해야 되며, 외환결제문서의 구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정부주도형 전자무역 네트워크사업모델(G-Networking), 즉 현재 구현중인 PAA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입물류문서의 구현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며, 민간주도형 전자무역 네트워크사업(P-Networking), 즉 현재 구현중인 ASEM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외환결제문서의 구현을 우선적으로 구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구축을 합의한 정부주도형 해외진출사업(G-Penetration)모델, 즉 도미니카공화국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에서도 수입물류문서의 구현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주도형 해외진출사업(P-Penetration)도 외환결제문서의 구현을 중심으로 시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198개의 응답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표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응답 기업이 취급하고 있는 구체적인 산업별, 업종별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한계점으로 볼 수 있고, 향후 연구과제로 고려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해외수출지원을 위한 세일즈외교 본격전개, 보도자료, 2006. 3.31.
- 권오성, 전자상거래관련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제와 대응,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제6권 제1호, 2004. 4.
- 김석우 외,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SPSS WIN 10.0 활용의 실제」, 교육과학사
- 박 만, 한-ASEM e-Trade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정보학회,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1호, 2004. 3.
- 윤광운·김철호, 글로벌 전자무역네트워크의 과제와 전망, 국제무역연구, 제10권 제1호, 2004. 4.
- 이봉수,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협력강화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제5권 제1호, 2004.
- 이상진·정재승,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제7권 제4호, 2005. 12.
- 인터젠컨설팅그룹, 한-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004. 10
- _____, 글로벌 전자무역 장기전략 수립, KNET 용역보고서, 2005. 4.
- 전자신문, [열린마당]전자무역, 무역의 속도를 바꾼다. 「전자신문」, 2005. 11.28
- 최석범, 사이버무역시대에서의 글로벌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모델도입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제28권 제2호, 2003. 4.
- _____.신인광, 한국에서의 전자선화증권 운용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제6권 제1호, 2004. 4.
- _____, TEDI의 사례분석을 통한 글로벌전자무역모델의 방향,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제5권 제3호, 2004.
- KNET, PAA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사업 현황보고, 2004. 7.
- _____, ASEM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사업, 2004. 1.

<인터넷사이트>

www.paa.net

www.ktnet.net

www.asemec.org

www.customs.go.kr